

2018 동계 이화봉사단 국내교육봉사

강원도 태백시
- 장성여자중학교



2019. 1

이번이 벌써 4번째 이화봉사단 활동이다. 이화봉사단 활동은 갈 때마다 매년 좋은 추억과 기억이 남는 것 같다. 이번 장성여중으로 파견된 이화봉사단은 2019년 새해 1월 1일부터 함께했기에 더 그 의미가 깊었다. 다양한 전공의 벼들과 3박4일 동안 서로 소통하고 의견을 나누며 대학생활 중 둘도 없는 경험을 겪었다. 또한 서로 초면인 벼들이 모여 교육봉사라는 하나의 활동을 함께하기 위해 뭉치면서 협동심도 기를 수 있었다. 그동안의 이화봉사단 활동은 대개 6명이 함께 갔으나, 이번 2019 겨울 이화봉사단 활동은 14명이라는 대인원이었고, 처음으로 팀장을 맡게 되었다는 점에서 특별했다. 팀장이 되어 벼들을 인솔하고 이화여대와 태백시 그리고 이화봉사단원들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하면서 그동안 팀장을 했던 벼들에 대한 존경심도 생겼다. 또한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 중재자 역할과 팀장이라는 리더 역할을 함께 함으로써 리더십을 기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새내기로서 처음 이화봉사단에 발을 디뎠던 내가 어느새 한 팀을 이끄는 팀장이 되었다는 점이 몽클했고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활동을 떠나기 전 장성여중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기대가 크다는 말을 듣고 더 잘해야겠다는 중압감이 있었다. 궁금한 점과 문의사항이 있을 때마다 여름에 갔었던 팀장님께 연락하고, 장성여중 아이들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장성여중에 도착하고 활동을 시작하면서 중압감을 떨쳐내고 매순간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했다. 마지막 날에 너무 좋았고 다시 참여하고 싶다는 아이들이 많아 매우 뿌듯했다. 2박 3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벼들 그리고 아이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소중한 인연들을 만나게 되어 기쁘다. 이화에 입학하고 가장 잘한 일은 이화봉사단에 신청한 것이다.

노*혜

새해에 다양한 이화여대학생들과 또 장성여자중학교의 학생들을 만난 것이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될 거 같다. 장성여자중학교는 일반 중학교와 달리 한 반이 3년 동안 유지되는 반이라 친구들이 서로서로 더 친했고 그 결과 더 쉽게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었다.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이들을 보며 준비한 프로그램에 대한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고 또 좋은 결과 역시 얻어서 아이들도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보였다. 이러한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봉사 기회에 꾸준히 참여하여 교육봉사에 대한 좋은 기억을 꾸준히 얻고 싶다.

양*지

2019년을 이화봉사단으로 시작하게 되어 정말 뜻깊었다. 다양한 과의 베타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함께 단합하여 나눔이라는 뜻을 실천해 보람차고 즐거웠다. 교육의 소외를 받는 학생들을 위해 봉사하는 나의 꿈을 이화봉사단을 통해 이루어나간다는 사실이 정말 행복했다. 2박 3일동안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하니 힘든 점도 있었지만 조장님의 리더십 덕분에 잘 마무리할 수 있었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리더를 맡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다. 이번 경험은 미래 교육자로서 정말 잊지 못할 것이다.

한*은

2박 3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이화대학교를 대표하는 멘토로서 이화에 대한 소속감과 사명감을 확실히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였다. 캠프를 가기 전 단원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준비할 때부터 설렘이 느껴졌지만 장성여중에 도착하여 활동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면서 매일이 두근거렸던 것 같다. 시간이 너무 짧아 아쉬웠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짧은 기간에도 정이 들어 헤어질 때 너무 힘들었는데 시간이 더 길었다면 훨씬 더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확실히 초등학교 아이들보다 생각이 깊고 성숙해서 보다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고, 생각했던 것보다도 너무 순수해서 캠프 내내 정말로 행복했다.

김*림

아이들의 순수함을 맞이하고, 다시 교직에 대한 꿈을 살려주었으며, 멘토로서 가치 있는 사람이 된 경험을 했던 이화봉사단 경험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 사실 장성여중 프로그램이 1월 초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18-2학기 말 대학 생활과 이화봉사단 활동 준비가 겹쳐 처음에는 부담감이 컸다. 하지만 2박 3일이라는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학생들에게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해 고민하며 프로그램을 준비했던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 실제 교직에 대해 고민이 있는 사범대 학생으로서, 장성여자중학교라는 생생한 교육현장 속에서 학생들과 친밀감을 형성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깨달았다. 또한, 주도적으로 내가 교사가 되어 학생들을 이끌 수 있었기에 보람찬 활동이었다. 작은 단위의 학생들 앞에 섰던 경험은 많지만, 전교생이나 한 반의 단위의 학생 앞에서 섰던 경험은 적었기 때문에 이번 활동을 통해서 한번에 다수의 학생을 어떻게 대해야 집중을 시킬 수 있는가 고민하며 성장할 수 있었다.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또 참여하고 싶을 정도로 좋은 경험이었다.

최*희

처음에는 3일이란 짧은 시간동안 아이들과 친해질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다. 그러나 아이들은 생각보다 마음을 쉽게 열어주었고, 급기야 마지막에는 서로 롤링페이퍼를 주고받으며 울기도 했다. 평소 사범대를 다니면서 직접 교육 현장에 참여할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이화봉사단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었고 소중한 인연들도 많이 만났다. 무엇보다 봉사활동을 통해 어떻게 학생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지, 어떤 말이 잘 와 닿을지 고민한 과정들이 가장 소중했던 것 같다. 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매일 회의를 하면서 힘이 들기도 했지만 그만큼 뿌듯한 활동이었다. 수고해준 다른 팀원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박*수

이화봉사단은 처음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팀원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과 봉사 일정이 빨라 학기 중에 준비를 하여야 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봉사를 하는 중과한 후에는 벌써 끝났다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스스로 지원하여 참여한 봉사이기 때문에 모든 팀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함께 지낼 때 거리낌 없이 즐겁게 지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 프로그램들을 즐겁고 적극적으로 함께 해준 장성여중 학생들 덕분에 보람차고 제가 더 즐거웠습니다. 이화봉사단덕분에 행복하게 새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화인들이 왜 이화봉사단에 많이 지원하고 참여하고 싶어 하는지 알게 되었고 저 또한 다음 이화봉사단에 또 지원하고 싶습니다.

서*

다른 이화봉사단 프로그램들과 다르게 2박 3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이뤄지는 프로그램 이어서 아이들과 친해지지 못할까 봐 걱정이 많았다. 하지만 생각보다 순수하고 밝은 아이들에 새해부터 좋은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다. 봉사활동을 하러 간 것이지만 오히려 아이들에게 더 도움을 받고 온 것이 아닌가 싶다. 헤어질 때 울고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눠서 그런지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이 곳으로 봉사활동을 오고 싶다.

전*진

2019년 새해부터 이화봉사단과 함께 의미 있게 시작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이화봉사단 활동을 통해 만난 이화인들과 장성여자중학교에서 교육봉사를 하면서 나눔과 배려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첫 이화봉사단 활동이었는데 기대했던 것보다 더 즐겁고 감동이었고 특히 마지막 날 학생들이 멘토들 몰래 롤링페이퍼를 준비해서 주고 가서 눈물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봉사자로 갔음에도 순수하고 밝은 장성여중 친구들에게 오히려 배우고 온 시간이었으며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새 정도 많이 들어서 헤어질 땐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장성여중 친구들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행복했고, 일상에 지친 제 자신에게 새로운 동기부여가 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전에는 몰랐지만 봉사를 다녀오고 나니 이화봉사단 활동에 참여하기 정말 잘했다고 느꼈습니다.

최*아

처음에는 3일간의 모든 일정을 직접 다 짜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스러웠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모든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니 직접 프로그램을 준비 및 진행했다는 점이 더욱 뿌듯하게 다가왔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함께 봉사를 다녀온 멘토 벵들끼리도 금방 많이 친해져서 어려움 없이 편하고 재밌게 지낼 수 있었다. 또한 장성여중 멘티 아이들에게도 정이 많이 들어 헤어질 때 너무너무 아쉬웠다. 이화봉사단의 활동을 '선물 같았다'라고 표현해주는 아이들 덕에 오히려 더 힐링받고 배운 것이 많은 활동이었다.

김*서

처음 이화봉사단 활동에 참여해 걱정이 되기도, 기대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걱정한 것이 무색하게 팀원들과의 협동이 잘 이루어져 큰 어려움 없이 계획했던 활동들을 모두 잘 마쳤다. 또 장성여중 친구들도 모든 활동을 잘 따라와 주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덕분에 봉사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하루 먼저 도착해 기존에 계획했던 2박 3일이 아닌 3박 4일 일정이었지만,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만큼 팀원들 그리고 장성여중 친구들과의 정이 많이 들었다. 앞으로도 이화봉사단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번 활동이 인상 깊었고 즐거웠다.

김*진

이화봉사단 참여는 이번 겨울이 처음이었는데, 앞으로의 학교 생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 중 하나가 될 것 같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소통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봉사를 통해 나눔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다. 봉사 지역의 학생들과 소통하면서 내가 가진 능력을 그들과 나눌 수 있다는 점이 좋았으며, 내가 그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점이 뿌듯했다. 2019년의 시작을 이화봉사단으로 시작했는데, 너무나 좋은 추억과 기억을 만든 것 같고, 한 해의 시작을 보람있게 만들 수 있던 것 같다. 앞으로도 이화봉사단에 참여해서 좋은 추억과 기억을 만들고, 봉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싶다.

김*수

계획을 세우는 순간부터 힘든 시간이 많았는데 팀원들 덕분에 너무 재미있고 보람차게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3일이라는 시간 동안, 계획대로 잘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도 많이 있었는데 팀원들과 함께 한다는 그 자체로 용기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3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 날의 활동이 끝나면 많이 지쳐있을 텐데도 모두가 한 방에 모여 활동에 대해 보완점을 찾고, 피드백을 하면서 다음 날의 활동은 더 잘 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14명 모인 자리에서 서로의 의견을 주고 받으면서 경청과 수용의 자세에 대해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협동심을 가장 크게 느꼈습니다. 어떤 활동을 해도, 사소한 것 하나하나 누군가의 일이라고 나누는 것 없이 모든 일을 자신의 일처럼 하면서 팀워크라는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성여중 학생들과 소통하면서, 학생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매 시간 책임감을 가지고 저 역시 성실히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참여하고 싶은 너무나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입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시간에 비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장성여중 학생들과의 활동 프로그램도 정말 좋았지만, 좋은 봉사단원들을 만나 함께한 시간들이 즐거웠고, 보람 있었습니다. 다양한 생각을 가진 학생들, 봉사단원들과 보낸 시간은 저의 시야를 확장을 시킬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봉사단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의 뛰어난 표현력과 아이디어를 알 수 있었습니다. 멘토링과 토크 콘서트 활동으로 학생들의 학업이나 진로에 관한 고민을 공유하면서 정서적 교감을 이룰 수 있었으며,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이번 봉사단 활동을 통해 제가 장성여중 학생들에게 학업적인 도움을 주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순수하고 표현력 넘치는 모습을 통해 저 스스로를 되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